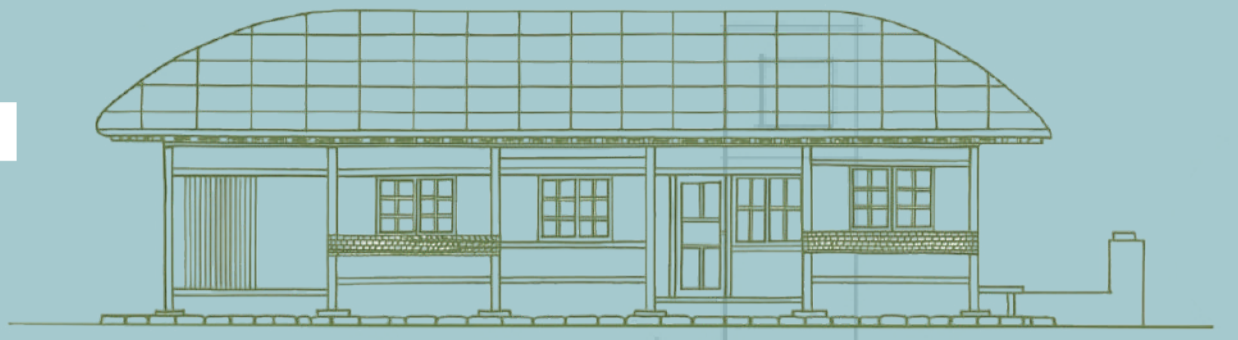


심훈은 건축가인가



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심훈(沈薰, 1901~1936)은 충청남도 당진에 1934년 ‘필경사(筆耕舍)’라는 집을 직접 짓고, 그곳에서 소설 『상록수』(1935)를 집필했다. 금년은 대한건축학회 창립 80주년이기도 하지만 『상록수』가 출간된 지 9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. 이에 대한건축학회는 ‘건축가로서의 심훈’의 면모와 필경사의 건축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갖고자 한다. 당진시가 매년 가을 개최하는 ‘심훈상록문화제’를 기해서이다.

- 일시 2025년 10월 17일(금), 오후 2~5시
-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문예의전당 소공연장 (무수동2길 25-21)
- 주최 (사)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 + (사)대한건축학회
- 주관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



- 사회 **김현섭** 대한건축학회 건축역사이론위원회 위원장,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
- 환영사 **최석기**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
- 축사 **황침현** 충청남도 당진시 부시장
- 한기흥** 심훈기념사업회 이사장
- 개회사 **박진철** 대한건축학회 회장,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



- 시 낭송 **김향자**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 회원
「그날이 오면」, 심훈

- 기조강연 **임창복** 성균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
필경사와 『상록수』에 남긴 ‘건축가 심훈’의 꿈

- 토론 1 **강진호**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
심훈의 중국 체험과 『상록수』의 꿈

- 토론 2 **김동욱** 경기대 건축학과 명예교수
1930년대 중부지방 농촌 살림집의 성장과 심훈의 필경사

- 토론 3 **이경아**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
1930년대의 사회적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보는 ‘심훈’과 ‘필경사’

- 종합토론 발표자, 토론자, 청중

